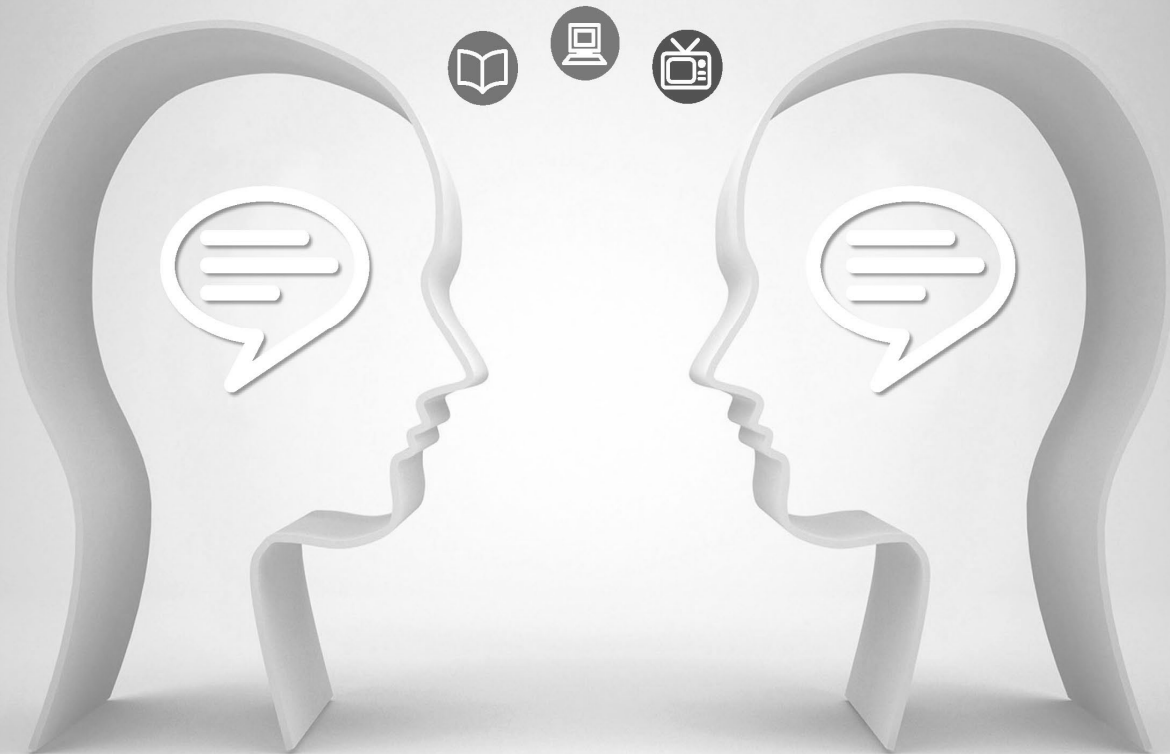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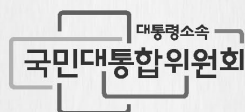
함께하자!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위원회 제7회 「갈등관리 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저널리즘의 공공성 제고 방안



-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14:00-16:1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의 주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 주시는 JTBC 이규연 국장님,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고려대 민영 교수님, 서울대 한규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정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KBS 정필모 해설위원님,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님, 한겨레신문 백기철 부국장님, 서울신문 진경호 부국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선호 연구위원님, 그리고 종합토론에 참여해주실 갈등관리 포럼 위원님들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운영하는 『갈등관리 포럼』은 다양한 사회갈등 이슈를 진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언론이 사회갈등을 확대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보도품질의 개선과 언론의 사회통합적 역할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각종 신문과 방송, 인터넷, SNS 매체로 인해 현대인은 그야말로 뉴스와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미디어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독자들의 이용 행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중들은 몇 가지 매체에 의존해 세상의 소식을 접했지만, 오늘날은 무수히 많은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끝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언론과 미디어의 책임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언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널리즘의 본질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러는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기사와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와 담론을 만들어 냄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여지없이 큰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도 한 몫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진실을 전하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취재 현장을 누비는 참 언론인들이 더 많습니다. 정치인으로 오래 활동해온 저는 기자들의 취재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로 치열해지는 속보 경쟁과 선정적 보도가 난무하는 속에 제대로 된 기자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사회의 거울이자 지성의 보고(寶庫)인 언론이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존하고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이 때, 언론이 가야할 길에 대해 묻고 생각해 보는 오늘과 같은 자리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률과 독자층 유지,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한 언론의 고민이 깊은 줄로 압니다만, 언론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언론 생태와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현직 언론인들이 언론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본다면 많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본 세미나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 광 옥**

행 사 일 정

포럼 사회 : 이규연(JTBC 탐사기획국장)

개 회 14:00~14:10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주 제 발 표 14:10~14:50	〈주제발표 1〉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방안” : 고려대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
	〈주제발표 2〉 “국내 뉴스 유통구조와 언론 생태계”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토 론 14:50~16:05	〈지정토론 1〉 -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정토론 2〉 - 정필모 (KBS 보도위원) - 진경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 백기철 (한겨레신문 기획에디터) -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종합토론〉 - 포럼 위원 및 참석 인사
폐 회 16:05~16:10	- 행사 마무리

목 차 | CONTENTS

I 발제문

주제 1 :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방안” / 민 영 3

주제 2 : “국내 뉴스 유통구조와 언론 생태계” / 한규섭 11

I 토론문

토론 1 / 정필모 27

토론 2 / 진경호 29

토론 3 / 박성원 33

토론 4 / 백기철 35

토론 5 / 김선호 37

발 제 문

주제 1.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방안

주제 2. 국내 뉴스 유통구조와 언론 생태계

언론의 사회통합기능 강화방안

민 영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언론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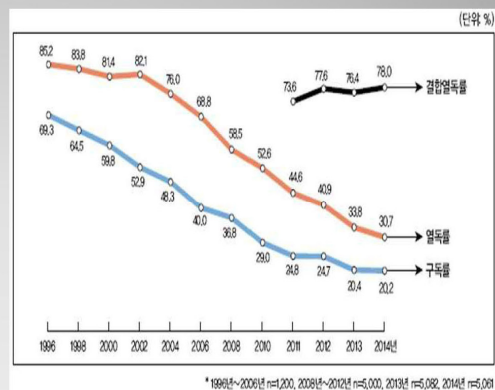
이준웅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민영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 언론의 현황

• 종이신문 열독률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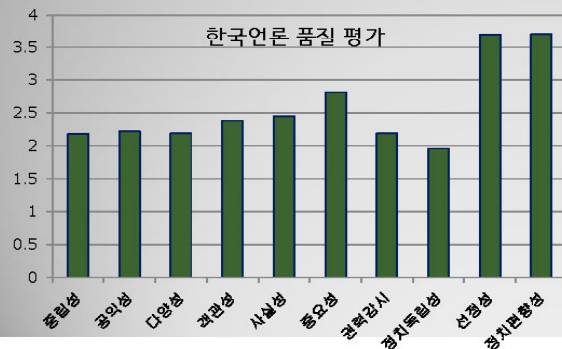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종이신문 구독률 20.2%, 종이신문 열독률 30.7%, 디지털 뉴스 결합열독률 78.0%
- 종이신문 순이용자는 감소하는 가운데, 인터넷 신문 순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일반 시민들의 뉴스 소비는 인터넷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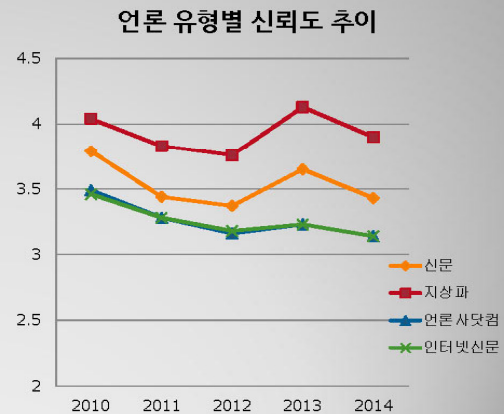
출처: <2014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 언론의 현황

- 국내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언론 보도 품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하락



출처: 민영(2015), 한국언론 신뢰 조사



출처: <2014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과 사회통합

-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
 - (가) 갈등 여부와 내용에 대해 당사자와 주요 행위자가 합의
 - (나) 대결이나 분쟁이 아닌 '통합적 방법'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
 - (다) 사회적 숙의, 즉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
-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성숙한 저널리즘
 - (1) 갈등적 보도의 현황과 원인, 대안에 대한 국내외 문헌탐색
 - (2) 중견 언론인과 언론학자 포럼 개최:
 - 갈등 유발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숙의적 방법론에 기초해 대안 도출

한국 언론의 갈등소비 관행

- **정치적 담론 주체로서 언론의 역할 증가**
 - 탈권위적 의사소통 양식의 확대와 시민적 소통의 강화
- **민주화 이후 한국 주요 언론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파적으로 분화**
 -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당대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전개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 간의 정파적 대립 강화
 - 분파적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에 따라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
- **언론의 이념 분화와 사회정치적 갈등**
 - 언론은 공중의 이념적 분화를 반영한다기보다 사회정치 엘리트 갈등을 반영
- **정치체제와 매체체제의 불완전한 분리**
 - 언론인의 보상구조가 정파적 개입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보도 영역별 갈등생산 구조: 정치보도

- **정치보도의 현황**
 - 갈등 구도에 따른 정쟁 프레임의 사용
 - 정치보도는 정쟁, 갈등, 대립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다툼의 본질이나 원인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며, 복잡한 정치적 사안도 단순한 갈등 구조로 틀짓기
 - 이른바 ‘몰아가기 식’의 경향성(tendentiousness)
 - 정파성과 선정성이 혼합되어 때로 극단적 경향성 노정
 - 사실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극단화
 - 사실 기사에서도 경향성이 드러남: 피동형, 익명의 출처, 따옴표 인용 등
- **갈등보도의 원인**
 - 시장 상황의 악화 속 선명성 경쟁
 - 출입처 제도와 취재원과의 관계: 언론의 정치지향성과 취재원과의 상호적 유착 관계

보도 영역별 갈등생산 구조: 공직자 검증 보도

- **공직자 검증 보도의 현황**
 - 공적 관련성이 없는 공직 후보자의 사적인 사안에 집중
 - 일관되지 않은 검증 기준
 - 언론사의 정파적 경향과 결합
- **갈등 보도의 원인**
 - 언론사의 영향력 추구
 - 공직자 검증 보도를 언론의 파워로 인식
 - 공직자 검증보도의 방향이나 품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대신, 이를 언론사의 정치적 행위로 활용하는 경향 노정

보도 영역별 갈등생산 구조: 검찰보도와 재난보도

- **검찰 보도(수사 중인 사건 보도)**
 - 불투명한 정보처리 관행: 익명 취재원 인용, 피동형 문장 등
 - 윤색적 보도와 추측성 기사
 - 언론사 간 과도한 경쟁
 - 취재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의존
- **재난보도**
 -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취약; 검증되지 않은 사실 보도
 - 정보 발표에 의존하면서 적극적인 책임 규명이나 탐사적인 취재에 취약
 - 재난보도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인프라 미흡
 -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 재난보도의 수준에 극명하게 드러남

언론인의 현황 진단과 대안 제시

	언론 보도 내용	언론인 행위 및 관행	언론사 조직	제도 및 환경	전체
현황 진단 (문제 및 원인)	36 (22.4)	38 (23.6)	24 (14.9)	46 (28.6)	161 (100%)
대안 제시	11 (11.7)	21 (31.8)	15 (22.7)	9 (13.6)	66 (100%)
기타	3 (5.0)	10 (16.7)	3 (5.5)	6 (10.0)	60 (100%)
전체	50 (17.4)	69 (24.0)	42 (14.6)	61 (21.3)	287 (100%)

• 현황 진단

- 외부 조건이나 환경보다 언론 조직, 관행, 행위 등에서 문제 점과 원인을 찾는 경향

• 대안 제시

- 언론의 자율적인 개혁 방안을 더 활발하게 논의
- 언론인 행위와 관행 수준의 대안이 가장 비중 있게 토의됨

언론의 조직적 관행 개선

• 출입처 제도의 개선

- 출입처 중심과 주제 중심 모델을 교차하는 매트릭스 형 취재 체제 구축
- 출입처에 대한 독점적 보도 체제가 아닌 경쟁적 취재 체제를 도입하여, 조직 내부에 취재와 보도 경쟁 촉진
- 이슈와 사안의 성격에 맞게 출입처 간 경계선을 허물고 유연하게 운용

• 탐사보도/특별취재 팀의 운영

- 별도의 탐사보도팀/특별취재 팀 구성: 새로운 취재원, 채널, 취재 관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실험 방안
- 사내 취재 경쟁 도입: 동일한 사안을 보다 다면적, 입체적, 총체적으로 보도
- 영역 관행 극복: 취재 영역, 취재원, 채널, 정보의 공유 및 생산적 경쟁

언론의 조직적 관행 개선

• 전문직주의 심화와 내부 보상 체계의 정비

- 권력과 거리를 두는 정치적 독립성은 전문직주의의 필수 조건이자 저널리즘의 가치 자산
-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파성을 배척하는 언론 문화 정착
 - 정파성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으나, '사실타당성'과 '공정성'은 언론의 논리적 조건이자 윤리적 이념으로 작동해야
- 전문직주의 행위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실천하는 권위 모델 필요
- 언론사 조직의 단기 성과주의 극복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 대안적 뉴스를 제공

- 전형적 '뉴스들'에 대한 의존 탈피: 효율성을 위한 '아마' 관행과 갈등을 강조하는 관행 극복
- 비 논쟁적이고 비 정파적인 사안에도 전형적인 갈등 구조를 대입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뉴스 틀을 개발

• 정파성 모델의 정립

- 언론은 정치 플레이어가 아닌 정치 감시자, 비판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정파주의 저널리즘이 취약한 저널리즘 윤리와 결합되어 저품질의 뉴스 양산
- 저널리즘의 기본 철학을 준수하고 좋은 기사의 기준을 일상의 취재와 보도에서 실천
- 미국의 '저널리즘을 염려하는 언론인 위원회':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대중화하고 현장 기자들에게 도덕적 자극과 압력을 가함

사회적 속의기구 창설

- 사회적 속의기구의 성격과 역할

- (1) 언론의 사회통합적 역할을 위한 한시적 협의체
- (2) 언론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 및 검토
- (3) 언론 진흥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법을 모색

- 속의기구 구성

- 언론인 중심
- 각 영역별 주요 언론사의 간부, 언론협회, 언론노동조합, 언론진흥재단,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토론 기구 구성

언론 보도 분석과 비평

-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언론 보도 분석과 비평

- 전문적 분석 능력을 갖춘 기구가 정기적인 보도 분석
- 분석 기준의 체계화; 자료의 객관적 수집과 분석; 결과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평가
-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언론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 제출

- 미국의 ‘퓨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의 ‘탁월한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 영국 로우보로우 대학(Loughborough University)의 로우보로우 커뮤니케이션 센터(LCRC): BBC 트러스트, 오프콤, 가디언, 선거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정기적인 언론 모니터링

언론인 재교육 지원

- 언론인 재교육 제도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개선

- 자율성, 윤리적 가치, 공적 지향성 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언론의 갈등 확대 관행을 극복하기 어려움
- 언론인 재교육 제도가 한국 언론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지 검토
- 전문직주의를 체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실효적인 방법론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국내 뉴스유통 구조와 언론 생태계

한규섭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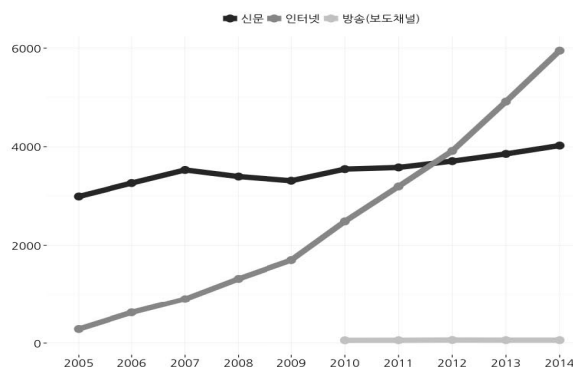
PoLLab
An analytic solution to strategic communication

국내 뉴스유통 구조와 언론 생태계

안 규 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언론과잉

한국 언론사 수 증가 추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 한국 언론사 수가 6천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언론사 숫자는 10년전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언론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한 언론 환경을 가져와, 언론사들이 기존 저널리즘 및 언론사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광고주 협회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안제
유사언론행위
 아예없는
 안 한다 10

광고주협회,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조사 결과 발표

광고예산 10.2%, 광고효과와 무관하게 집행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고 및 홍보를 조사한 결과는 일반 일반의 행태의 정도가 높은 가운데, 유사 언론행위로 인한 기업들의 광고비 피해가 “광고예산 대비 10.2%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기업 경영을 위한 내용 및 전달 목적에 관계 없이 광고주에게 제공된 부정 이슈에 따른 기사, 부정적인 이미지 제공 등으로 인한 불이익 크이언 사 기업에서의 광고 행위를 조사하는 “유사언론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 주목,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100여개 기업에 설문조사 실시

유사언론 피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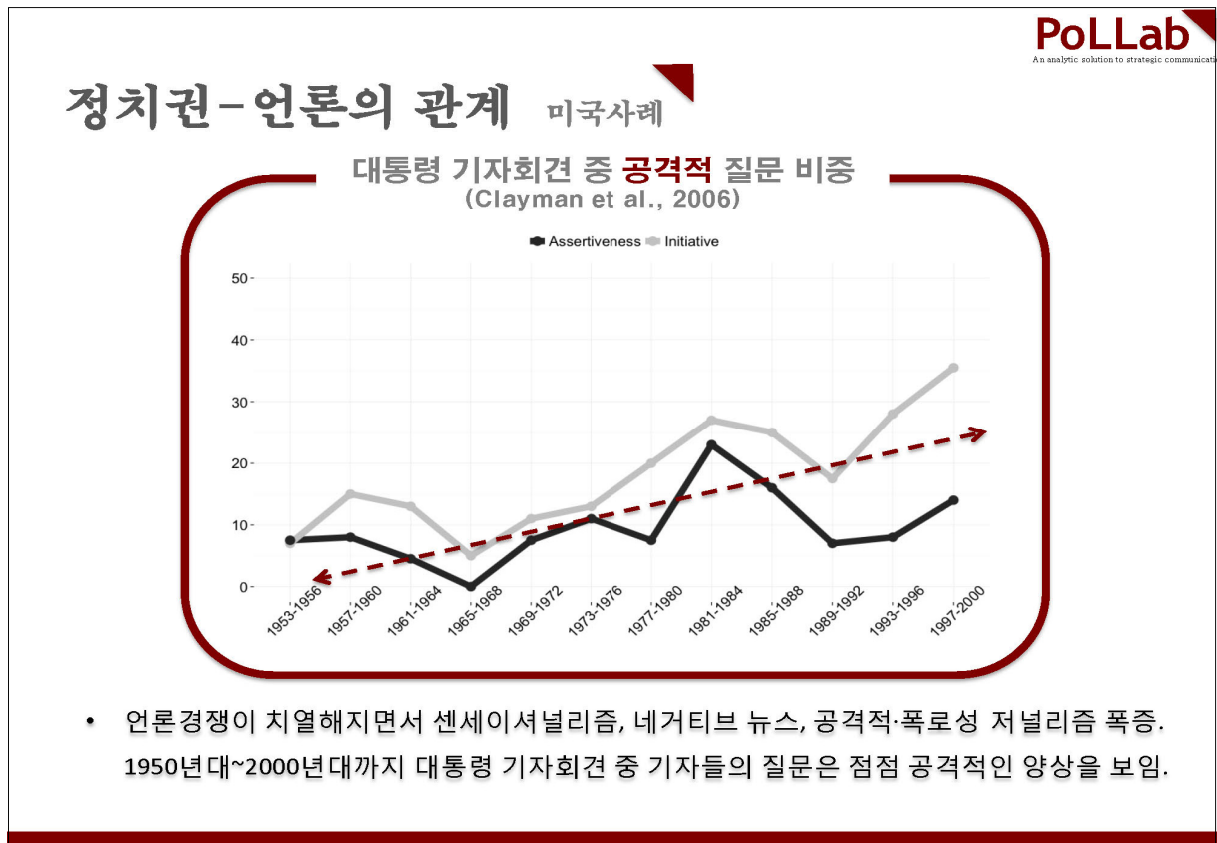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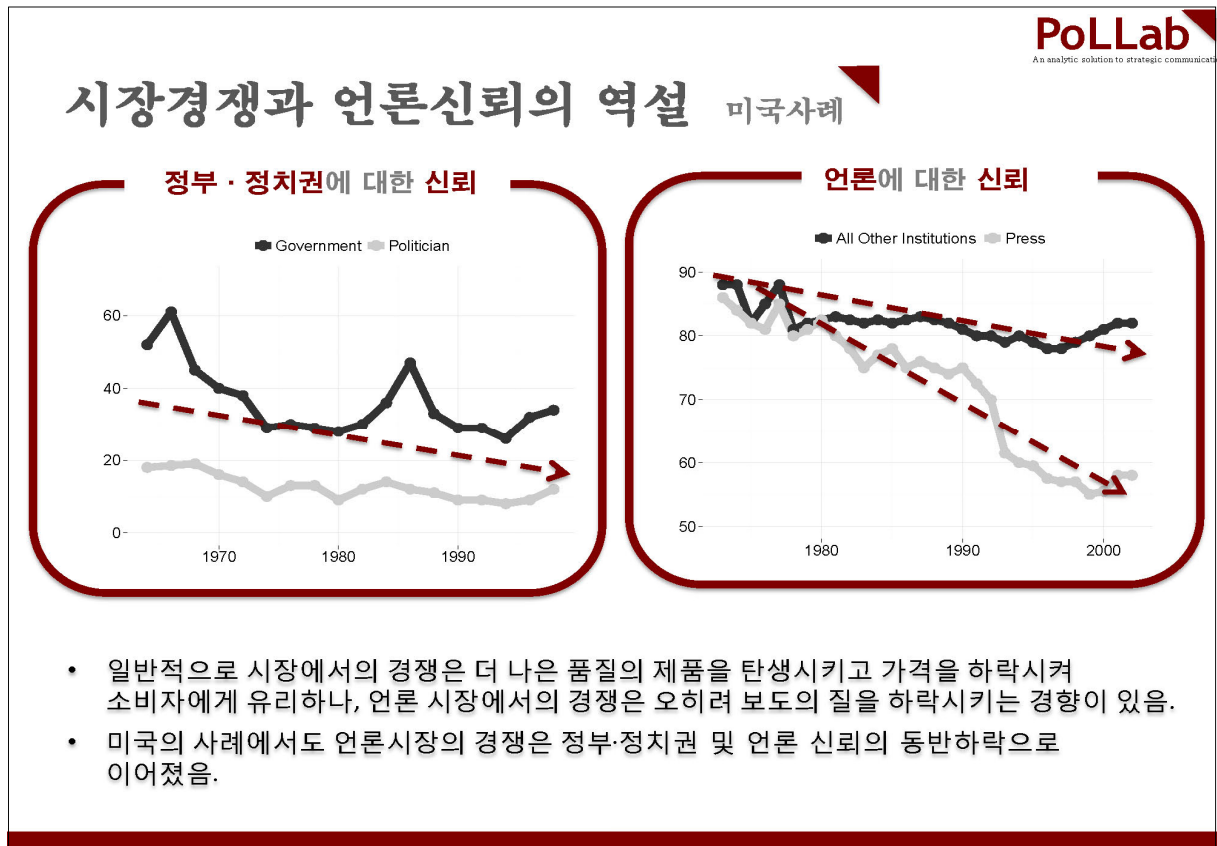
피해 여부	비율
있다	86%
없다	14%

광고주 협회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고 및 홍보를 조사한 결과는 일반 일반의 행태의 정도가 높은 가운데, 유사 언론행위로 인한 기업들의 광고비 피해가 “광고예산 대비 10.2%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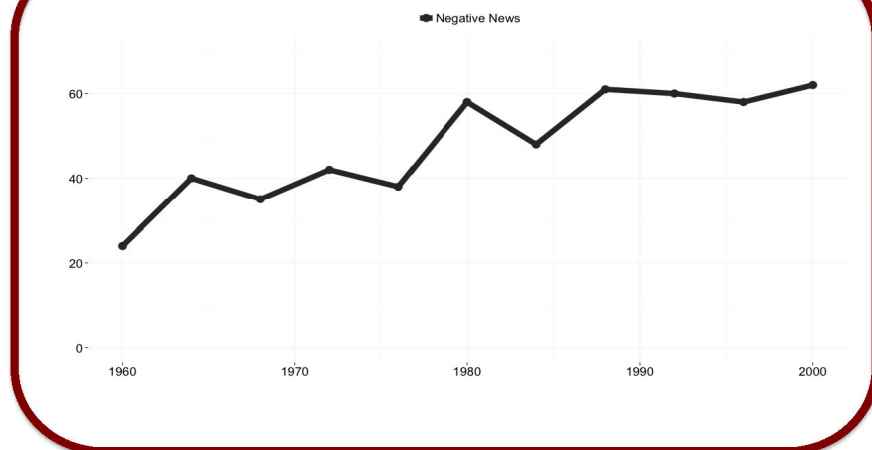
한국광고주협회는 기업 경영을 위한 내용 및 전달 목적에 관계 없이 광고주에게 제공된 부정 이슈에 따른 기사, 부정적인 이미지 제공 등으로 인한 불이익 크이언 사 기업에서의 광고 행위를 조사하는 “유사언론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 주목,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100여개 기업에 설문조사 실시

[illegible]



비판저널리즘의 폭증 미국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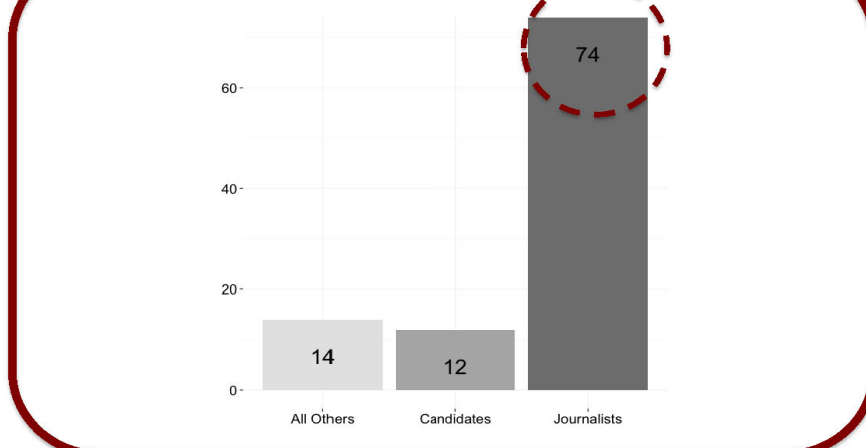
대선후보에 대한 부정적 보도 비중
(Patterson, 2000)



-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비율도 증가해 최근에는 이 비중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음.
- 이렇듯 부정적인 톤을 주로 사용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는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

사운드 바이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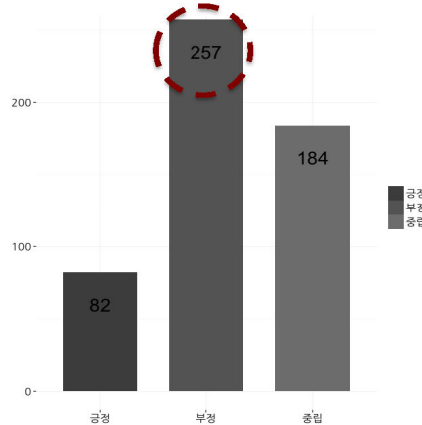
해석적 저널리즘 對 사운드 바이트 비중
(2000년 미국 대선)



- 언론의 또다른 변화 중 하나는 해석적 저널리즘이 증가했다는 것임.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의 발언을 시청자에게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운드바이트식 보도보다 기자의 해석이 추가 되는 방식의 보도가 증가했음.

네거티브 저널리즘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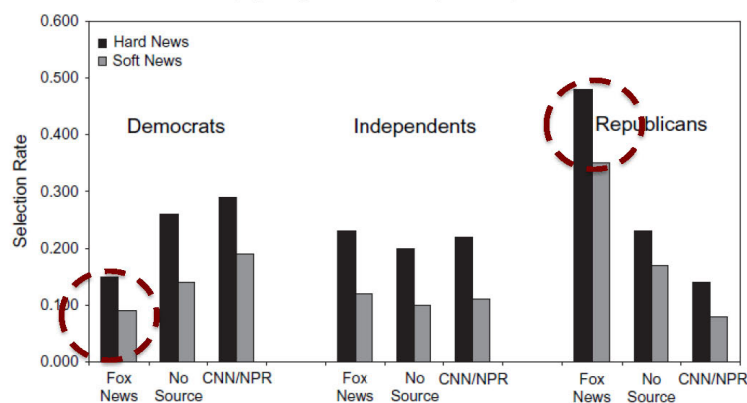
2007년 대선 선거 보도 유형
(구교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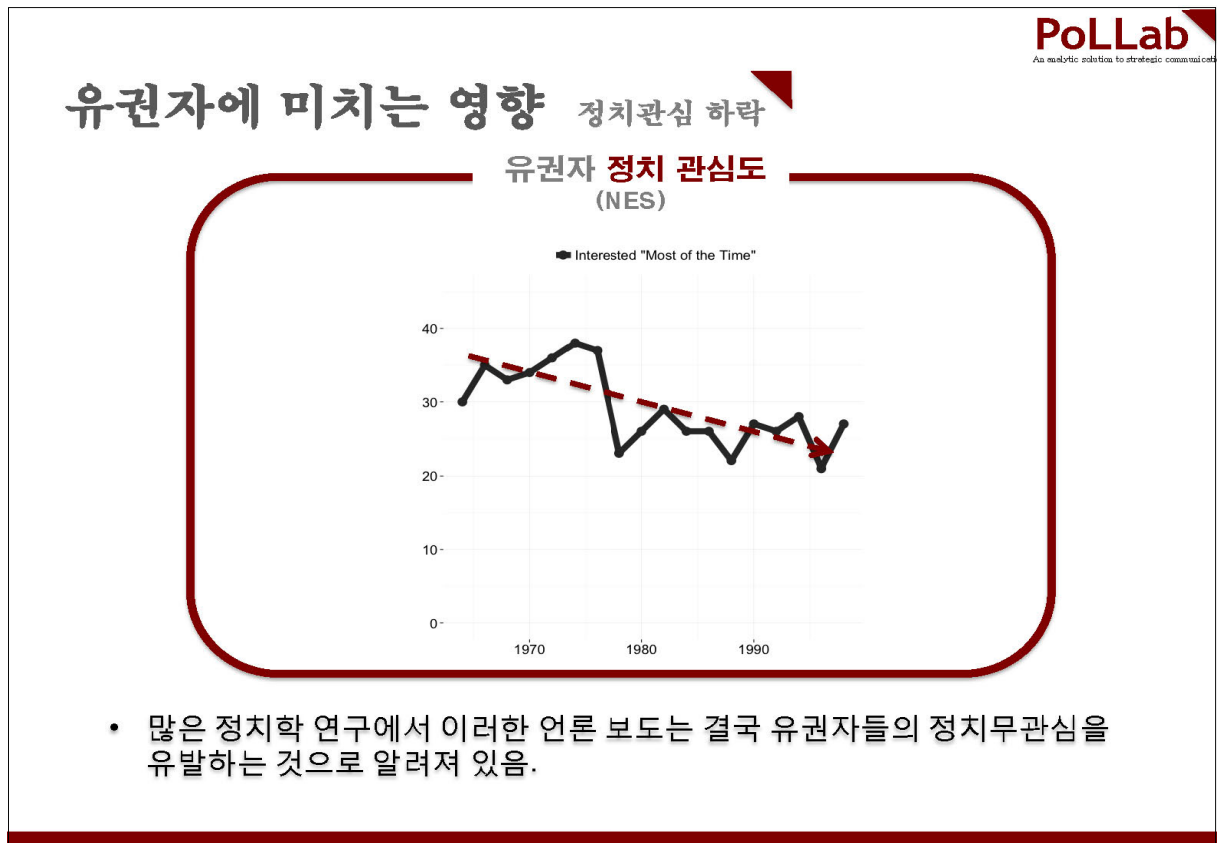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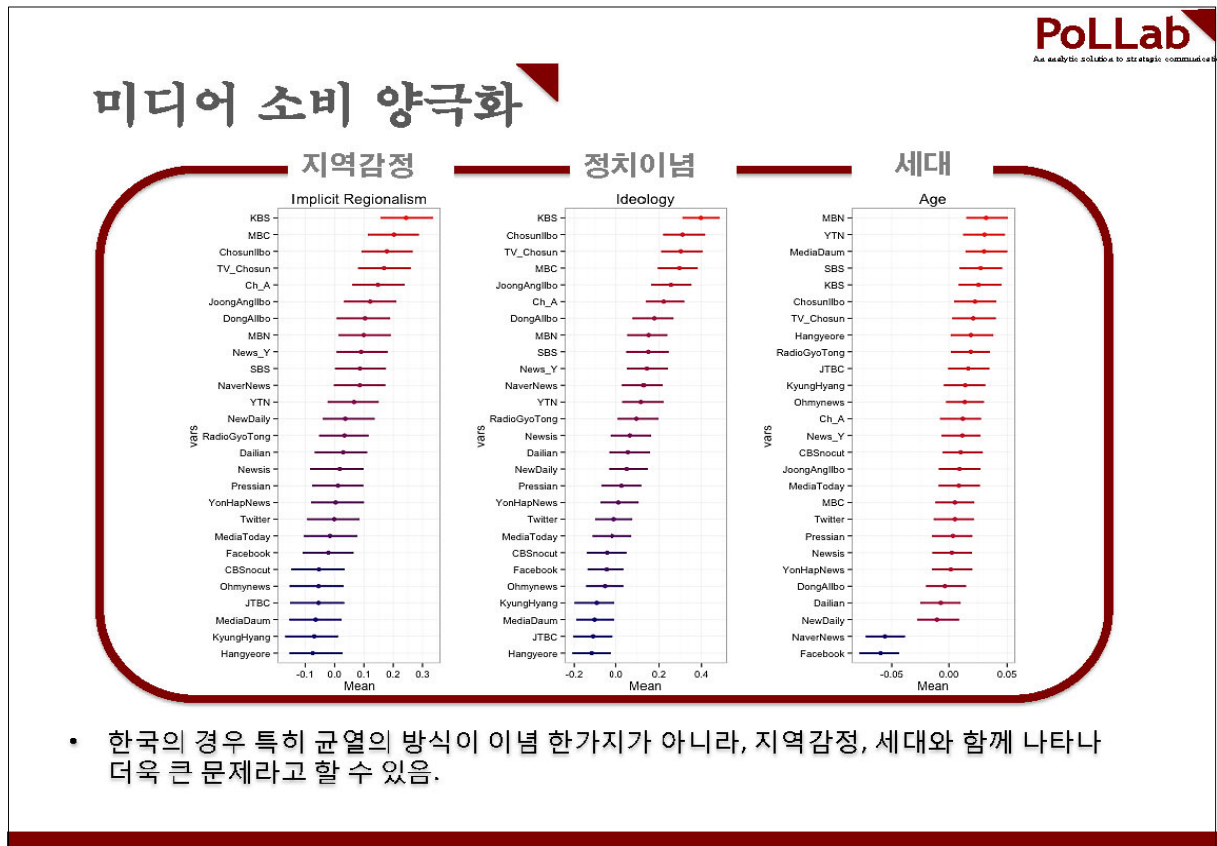
- 미디어 정치의 도래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나타났던 보도행태, 시청행태, 유권자 반응 등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대통령 선거 보도 역시 부정적인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음.

이념적 매체 등장 미국사례

진보 對 보수 미디어 소비 차이
(Iyengar & Hah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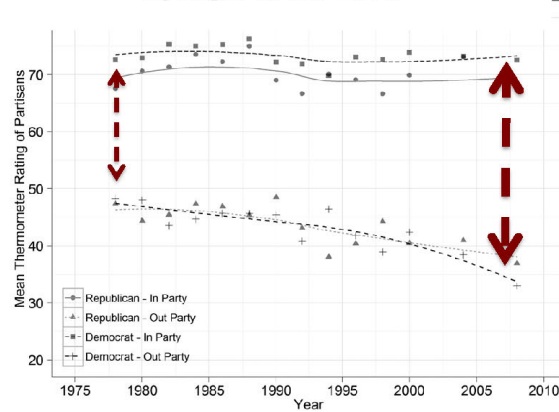


- 언론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언론사들은 니치마케팅(틈새시장 공략)에 나섬. 즉, 확실한 이념성향을 취함으로써 시청자를 확보. 폭스뉴스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며 우리나라의 종편채널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이념적 매체의 등장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선택적 노출의 증가로 유권자들이 이념성향에 따라 접하는 정보가 확연히 달라지고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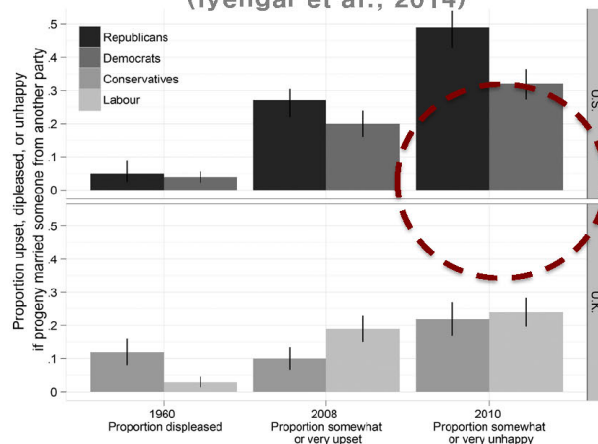
정당에 대한 감정온도 : Ingroup 對 Outgroup
(Iyengar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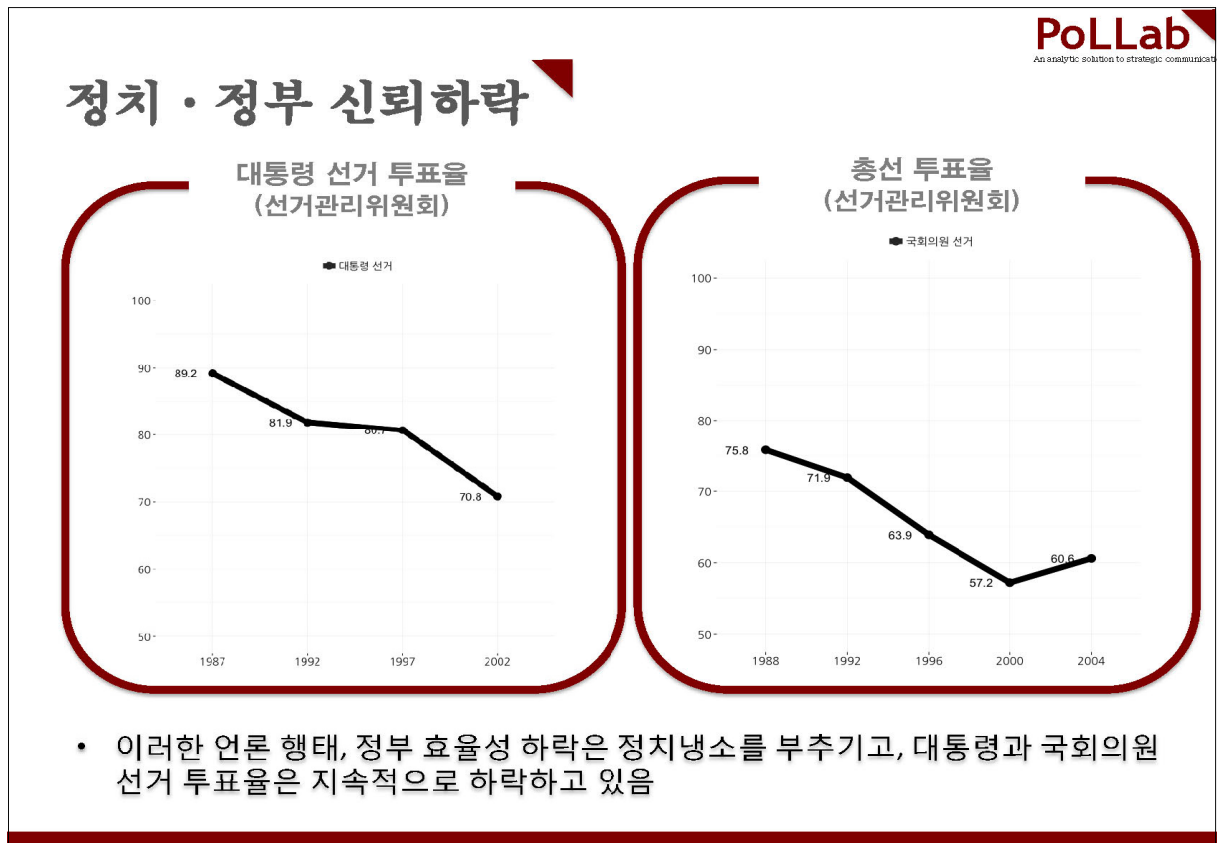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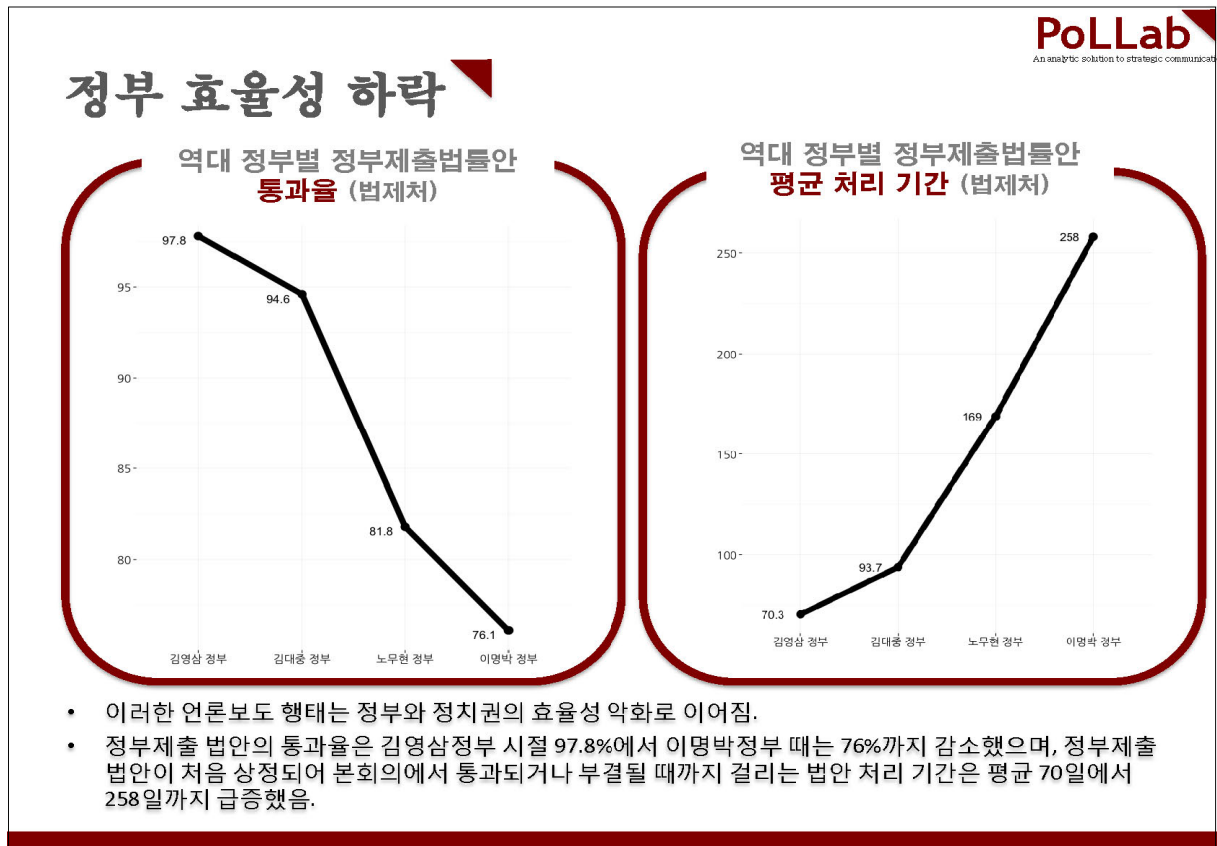
- 내가 지지하는 정당(InGroup)에 대한 감정온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OutGroup)에 대한 감정온도가 1975~2010사이에 10점 이상 떨어져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양극화

경쟁정당 지지자와 자녀가 혼인을 한다면?
(Iyengar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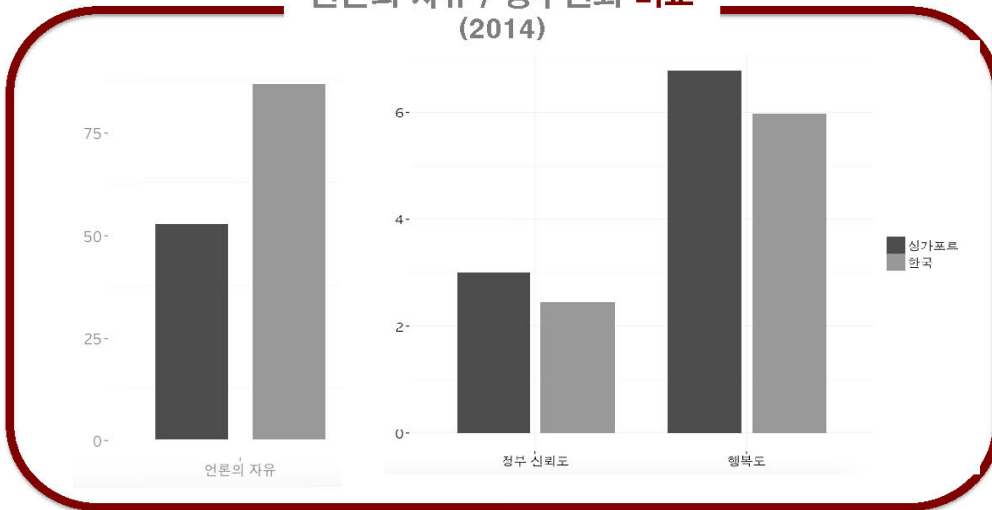
- 자녀가 자신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화가난다, 불만족한다, 불행하다) 을 가진다고 답한 사람이 1960년에 비해 많게는 10배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쟁 정당에 대한 관용도가 떨어지고 유권자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한국 對 싱가포르

PoLLab
An analytic solution to strategic communication

언론의 자유 / 정부신뢰 비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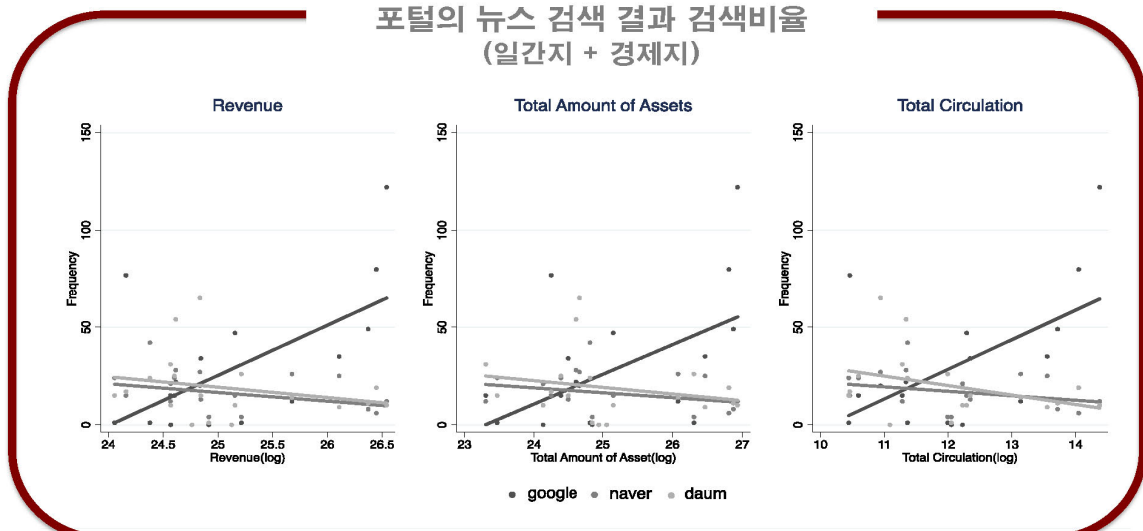


- 이러한 경향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음. 언론의 자유는 한국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지만, 정부신뢰도와 행복도는 싱가포르가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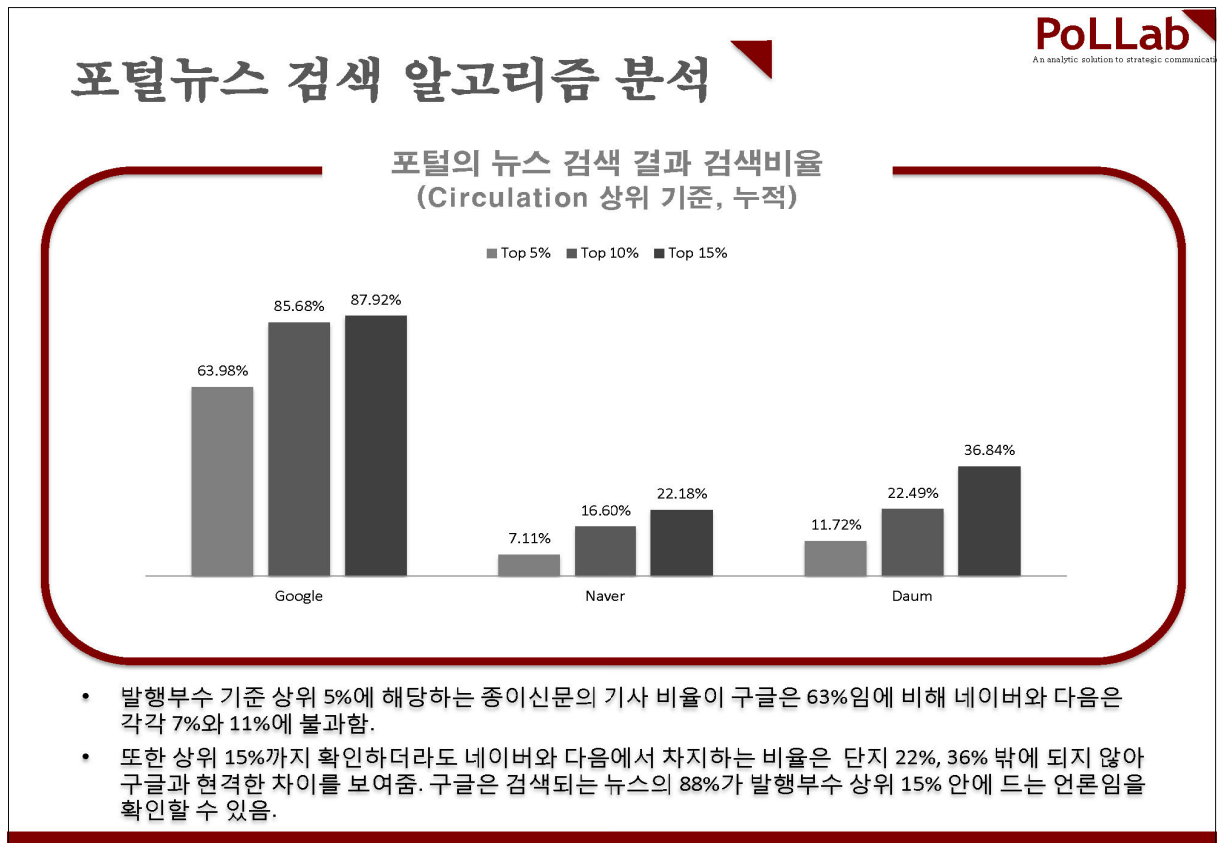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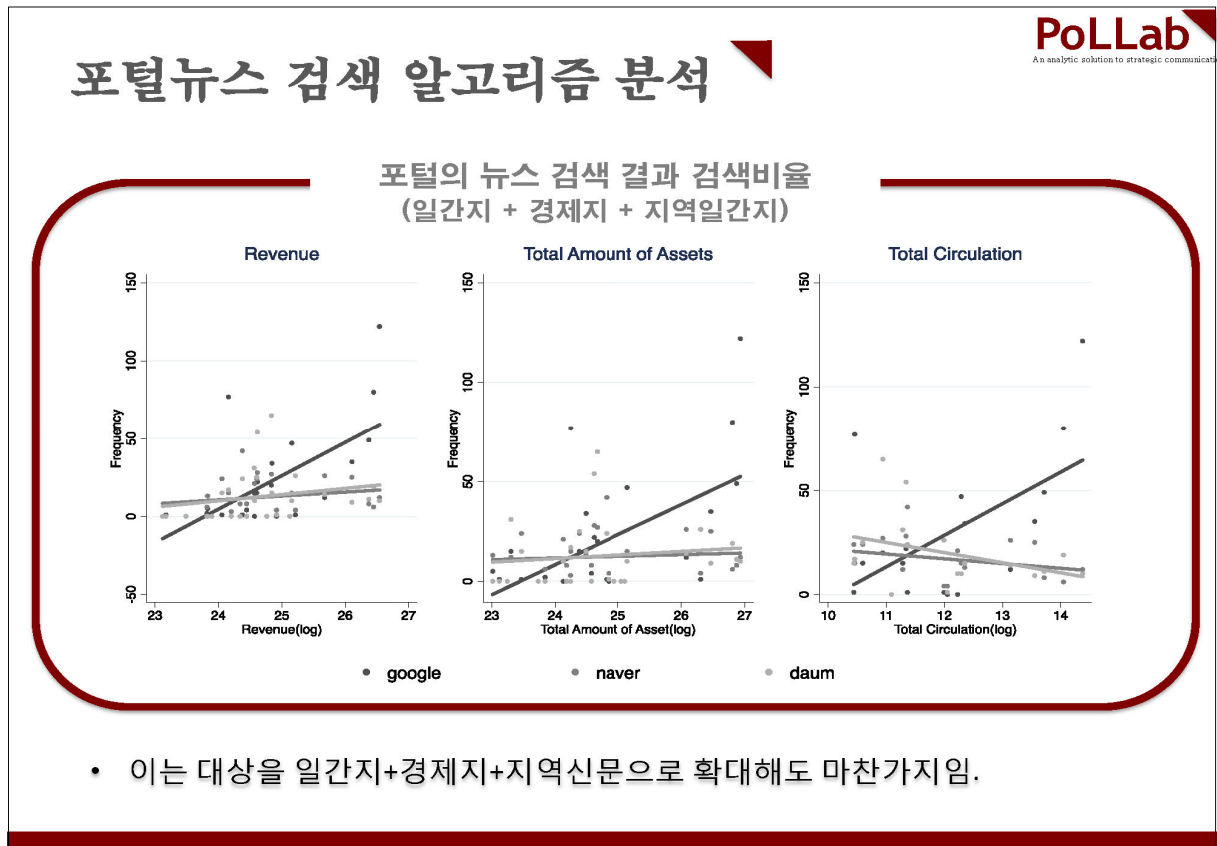
포털뉴스 검색 알고리즘 분석

PoLLab
An analytic solution to strategic communication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 검색비율
(일간지 + 경제지)



- 2015.3~10월까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 20개(일주일 단위)를 추출해 네이버·다음·구글에서 뉴스를 검색. 대부분의 뉴스 소비자가 검색결과와 첫 페이지에 검색된 기사만 읽으므로 각 매체가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 나올 확률을 추정.
- 구글에서는 총매출, 자산규모,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일 수록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높아졌으나,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전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포털뉴스 검색 알고리즘 분석

PoLLab
An analytic solution to strategic communication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 검색비율
(Circulation 상위 기준, 누적)

	Google	Naver	Daum
Top 5%	63.98%	7.11%	11.72%
Top 10%	85.68%	16.60%	22.49%
Top 15%	87.92%	22.18%	36.84%

-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인터넷 신문이 유력 종합일간지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결과에 잡히는데 반해 구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또 전국종합일간지만 고려했을 경우 이 격차가 더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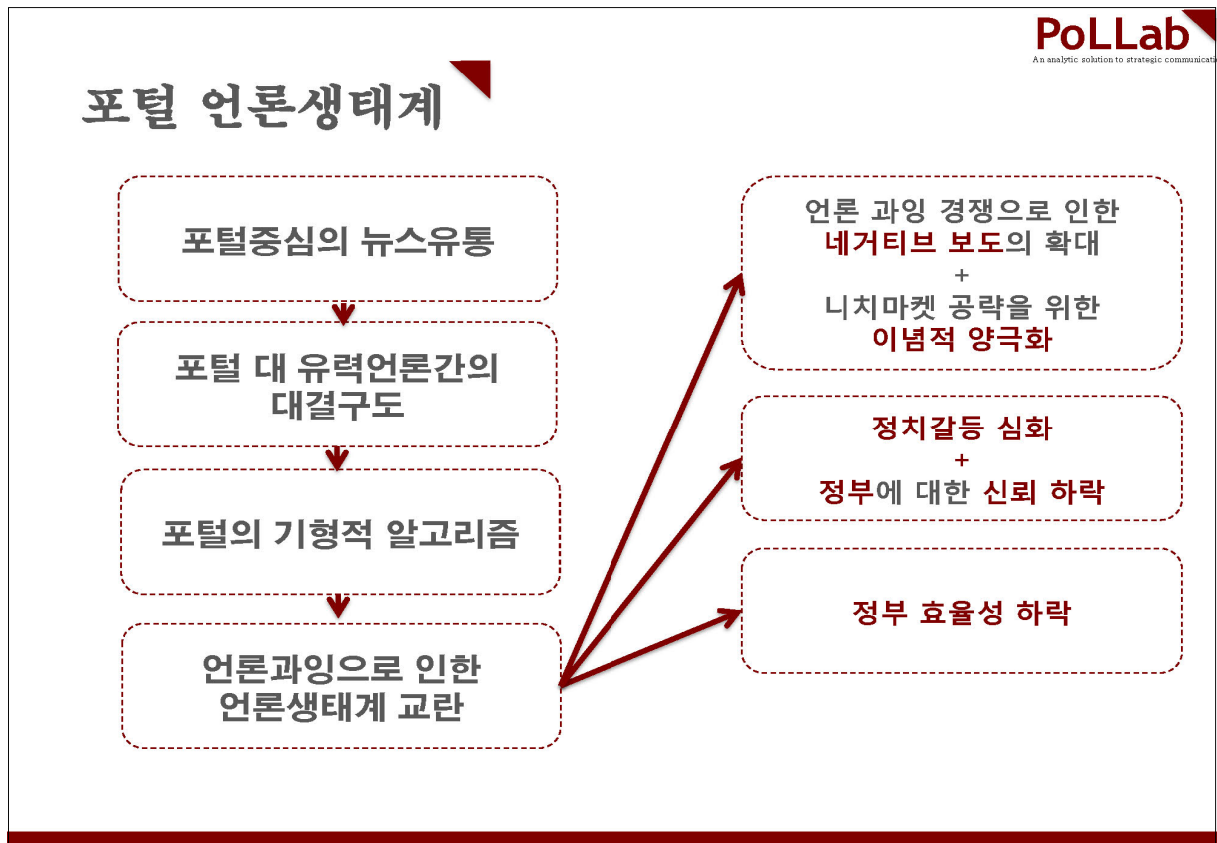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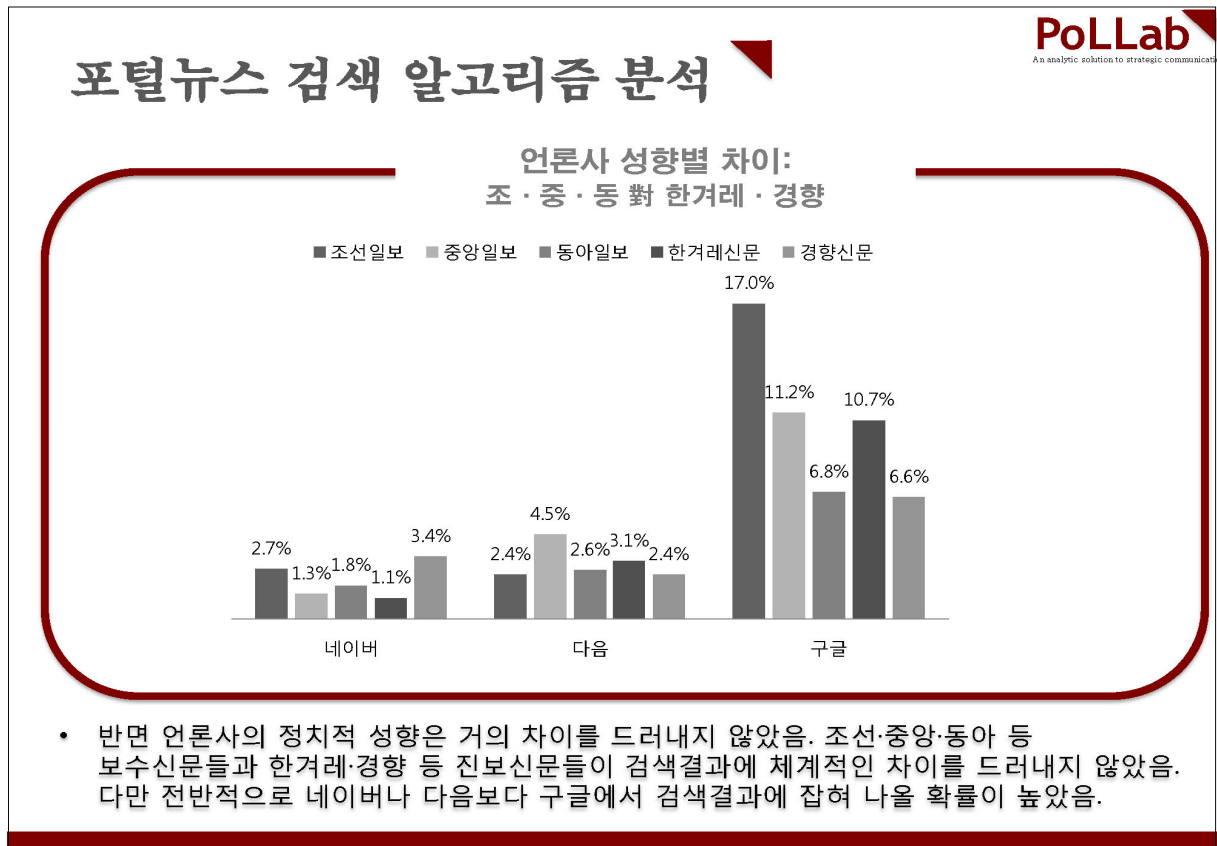
포털뉴스 검색 알고리즘 분석

PoLLab
An analytic solution to strategic communication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 검색비율

	네이버	구글	다음
종이신문	33.64%	52.50%	31.33%
신문(전국종합일간지1제외)	24.36%	23.14%	20.60%
방송	11.07%	2.29%	6.33%
인터넷신문	47.07%	37.79%	44.91%
통신사	7.86%	7.43%	17.44%
매거진	0.36%	0.00%	0.00%

-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인터넷 신문이 유력 종합일간지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결과에 잡히는데 반해 구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또 전국종합일간지만 고려했을 경우 이 격차가 더 컸음.



PoLLab
An analytic solution to strategic communication

감사합니다.

한 규 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kyuhahn@snu.ac.kr

토 론 문

토론 1 / 정필모

토론 2 / 진경호

토론 3 / 박성원

토론 4 / 백기철

토론 5 / 김선호

토 론 문

정필모 / KBS 보도위원

- 주제 발표 1에서 언급된 언론의 갈등 소비 관행과 관련하여 언론이 사회정치 엘리트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함. 우리 언론은 특히 정치적이념과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념적 잣대로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음.
 - 정책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적 갈등 구도의 보도가 불가피하더라도 부정, 비리 등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대립적 구도로 보도하기보다는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함.
 - 대립적 구도로 보도해야 하는 사안도 일방적인 발표와 주장을 대비시키는 형식적 균형성을 탈피해 공익적 관점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 선택인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숙의기구의 창설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한국언론학회 차원에서 해마다 언론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계량적 지표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유의할 점은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주요 언론사의 압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임.
- 주제 발표 2에서 언론 시장에서의 경쟁이 오히려 보도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미국 사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됨.
 - 4개의 종편이 생기고 1개의 뉴스 채널이 추가된 이후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음.
 - 이는 광고시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특정 시청자를 겨냥한 상업적 경쟁이 과열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이른바 돈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하다보면, 보도의 질적 하락뿐만 아니라 보도 방향의 획일화를 부추겨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여론 다양성을 위축시킨다는 견해도 있음.
- 미국에서 사운드 바이트의 비중이 줄고 해석적 저널리즘이 늘었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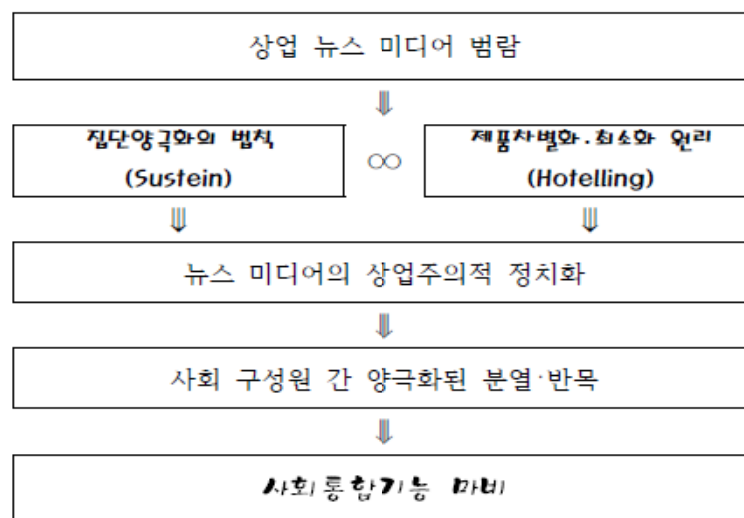
- 해석적 저널리즘이 주창 저널리즘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사운드 바이트는 객관적 보도인 것 같지만, 검증되지 않은 발표와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는 것은 취재원의 의도에 맡겨두는 것임.
- 미국의 폭스뉴스, 우리나라의 종편과 같은 이념적 매체의 등장은 매체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환경 하에서 상업주의와 극단적 정치 이데올로기가 결합한 결과로 판단됨.
- 이 같은 이념적 매체의 등장은 미디어 소비의 양극화 심화와 그에 따른 진영 논리 강화라는 경로를 통해 정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한국과 싱가포르를 대비시켜 한국이 언론 자유도는 훨씬 높지만, 정부 신뢰도와 국민 행복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우선 비교 대상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선진국이었을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임.
 - 정부 신뢰도와 국민 행복도가 언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려면,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함.
- 끝으로 포털 언론의 과잉으로 인한 언론 생태계 교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정부 효율성을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는 주장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갈등은 권력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결국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힘겨루기임.
- 갈등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
 - 특히 언론은 정치적, 경제적 물론 언론 접근도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득권층 혹은 다수파의 관용과 양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 물론 상대적 소외계층 혹은 소수파도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언론이 설득해야 함.

토 론 문

진경호 /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 한규섭 교수가 지적한 언론 과잉과 이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폐해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는 타당한 논거로 평가됨.
- 일례로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업 매체의 범람이 ‘집단 양극화’와 ‘보도 차별화 감소’의 양태로 이어지면서 ‘뉴스 미디어의 상업적 목적의 정치화’가 강화되고,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의 반목과 갈등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짐. (그림 참고)

<그림 2> 상업 미디어의 정치화와 사회분열



출처: 강형철(2012)

- 해럴드 호텔링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디어정치학에서는 이를 호텔링 효과라고도 함. 즉 양극화된 언론 매체들이 전혀 차별성이나 다양성을 갖지 못한 채 양질의 콘텐츠 대신 당파성과 선정성으로 경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적 반목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언론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매체들이 니치 마케팅(틈새시장 공략), 즉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보도태도를 시청자와 독자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같은 보도 성향에 따른 정보의 선택적 노출로 인해 일반 대중의 이념성향이 양극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한 교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함.

- 국민대통합위 갈등관리포럼 언론소통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핵심 문제점도 바로 이 대목에 있다고 할 것임.
- 정치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은 언론의 고유 기능이자 책무로서 마땅히 장려돼야 할 가치라 할 것임. 문제는 이와 같은 언론의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비판적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생산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할 것임.
- 즉, 지금의 상당수 언론 보도 행태는 열악한 경영환경 등에 따른 니치 마케팅 전략에 맞춰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보다 이념적으로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화하는 수준의 보도에 머무름으로써 국민의 정치 불신과 언론 불신, 사회 불신을 강화하고 사회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임.
- 이는 민영 교수의 발표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함.
- 민 교수는 ‘언론이 공중의 이념적 분화를 반영한다기보다 사회정치 엘리트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으나 현실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언론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이념 대립, 정책 갈등을 더 부추기고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함.
- 최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진보 진영의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보도 태도만 해도 진보 매체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는데 진력한 반면, 보수 매체들은 시위대의 불법 폭력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당이 폭면금지법을 재추진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음.
- 민 교수는 중견 언론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조건이나 환경보다 언론 조직, 관행, 행위 등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의 자율적인 개혁 방안을 더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현 시점은 언론의 자율적 개혁 논의 차원을 넘어서는 범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펼쳐져야 한다고 봄.
- 언론 스스로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보혁으로 나뉜 언론 구조와 6000개에 이르는 영세 인터넷 매체 난립, 포털의 언론 지배력 확대, 대다수 언론사의 경영난 등의 언론 환경을 감안할 때 언론 스스로의 개혁은 안타깝게도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처방이라고 할 것임.

- 민 교수는 그 대안으로 ‘사회적 숙의기구’를 구성해 (1) 언론의 사회통합적 역할을 위한 한시적 협의체 (2) 언론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 및 검토 (3) 언론 진흥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의하면서 숙의기구에 각 영역별 주요 언론사의 간부, 언론협회, 언론노동조합, 언론진흥재단,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토론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으나 이 숙의 기구는 언론 중심 차원을 넘어 범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봄.
- 지금의 한국 언론은 풍요 속 빈곤으로 정리된다고 할 것임.
 - 매체 수로 따지면 한국의 언론은 유례가 없을 만큼 만개해 있으나 많은 매체가 심각한 경영난과 이에 따른 존립 위기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전국종합일간지의 매출 총액은 1조 4154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군소 인터넷 매체의 열악한 경영 환경은 저널리즘의 기본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음. 세상은 뉴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우리 언론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담긴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한가한 일이라고 할 것임. 딱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우리 언론은 지금 자기 혁신의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언론사 차원이나 언론인 개개의 의지와 별개로 그런 집단적인 혁신을 추진할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임.
 - 개별 매체의 반성과 각성만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질 높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임.
- ‘가난한 언론’의 폐해가 지금 우리 사회를 얼마나 명들게 하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임.
 - 언론이 우리 사회를 조망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언론을 들여다보고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볼 때인 것임.
 - 왜 언론 매체들이 좌우로 갈려 정파적 주장을 앞세우는 편향보도에 매달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정정보도에 열을 올리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법을 찾는데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함.

- ‘기레기’ 운운하며 언론에 채찍을 가하는 것만으로 우리 언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봄.
 -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대 요구에 부응할 언론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함.
- 앞선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지구촌 뉴저널리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언론 중심의 숙의기구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기업, 학계, 언론이 머리를 맞대야 함.
 - 이를 통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 매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함.
- 특히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공적 기금을 만들어 ‘좋은 언론’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봄.
 - 이는 종합편성채널 구축에 투입된 수 조원의 자본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도 가능한 일임.
- 언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은 우리 언론에게 있어서 더 할 나위 없는 위기이겠으나, 사회 전체로 보면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봄.
 - 좋은 언론을 갖는 것만큼 대한민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고 할 것임. 이제라도 ‘좋은 언론’을 갖기 위한 범사회적 차원의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임.

토 론 문

박성원 / 동아일보 논설위원

○ 갈등보도의 정쟁 프레임

(1) 민영·이준웅 교수는 정치보도의 정쟁 갈등 대립 초점과 몰아가기식 경향성을 지적

(2)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피상적 보도’

- 교과서 문제의 출발점인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문제점에 대한 검증 소홀
- 좌파·우파 또는 여·야의(또는 계파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
-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과 분석 평가 개선의 필요성 여부 개선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정책보도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

(3) 11.14 ‘민중총궐기 투쟁 대회’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대립적 보도’

- 광화문 대규모 집회·시위 관련 불법·폭력적 시위대 vs. 경찰의 폭력적 살인적 진압
-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체적 분석보다 일면의 상황에 대한 선택적 보도
- 집회 시위 현장보다 정권의 실정에 초점을 두는 주의 주장성 보도
- 기계적 양비론의 문제 노출 회피성 보도
- 여야 또는 시위대와 경찰의 주의·주장이 아닌 현장검증성 보도와 문제점 및 대안 제시가 필요

○ 언론개혁을 위한 협의위원회 또는 사회적 숙의기구

- 민영·이준웅 교수는 갈등 확장형 보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보도 내용에 대한 사회적 협의는 한계와 위험성을 가짐.
-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언론보도 분석과 비평(전문적 분석 능력을 갖춘 기구의 정기적인 보도 분석)은 유용할 수 있음.
- 근본적으로는 갈등보도의 원인이 되는 정치·사회적 진영 갈등의 해소가 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함.
- 언론사 간·언론과 갈등주체 간·언론사 내부의 소통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욕설과 비방 위주의 네거티브적 피드백 대신 좋은 보도의 유통·소비 확산 구조가 필요함(가령, 미국 퓨 연구센터의 ‘탁월한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

○ 포털 언론생태계의 갈등 확산구조 개혁 필요성

- 한규섭 교수는 포털 중심의 뉴스유통으로 인한 언론의 과잉경쟁과 네거티브 보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정치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포털 보도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
- 포털의 편집뉴스 기능과 편향·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파리 테러 보도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천안함 폭침 보도

- 프랑스 언론들은 IS(이슬람) 추종자들에 의해 132명이 사망한 파리테러 사건 보도에서 축구경기장, 올랑드대통령, 라마르세예즈를 합창하며 질서정연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관중, 테러리스트 은신처에 대한 소탕작전 등 질서정연하게 절제된 몇 개의 장면 위주로 보도함.
- 우왕좌왕하는 무질서한 군중의 모습이나 선혈 낭자한 폭력적인 장면, 억울하게 죽었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희생자 가족의 모습은 비친 적이 없음. 관중에게 아무 고지도 않고 대통령만 먼저 빠져나갔다고(사태파악 및 지휘를 위해)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음.
- 테러 현장에 자칭 타칭 기자들이 1000여명 달려들어 중구난방의 미확인 정보를 쏟아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음. 만약 그랬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도 자신있게 추진하지 못했을 것임.
- 우리의 경우 지난 해 4·16 세월호 참사 때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다룬 보도는 거의 반대였음.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쏟아내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 추적하기보다는 정파적 갈등에 편승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였던 보도 행태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토 론 문

백기철 / 한겨레신문 기획에디터

○ 한국 언론의 현주소=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언론

<사례 1>. 아베노믹스 2기를 설명하는 11월28일치 조선과 한겨레의 보도

- 조선일보 1면=아베 “법인세 32.1%서 20%대로 낮춰보라” 지시/재무성, 내년부터 인하 검토
- 한겨레 1면=아베, 경기부양 위해 복지확대 나서/최저임금 올리고 저소득 1천만 명에 28만원 지급

<사례 2>. 민중대회 이후 시위대의 폭력과 시위자 중상을 둘러싼 보도

- 발제자들의 지적대로 한국 언론의 정쟁 프레임, 선명성 경쟁, 윤색과 추측성 보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 보도 등의 부끄러운 관행이 이런 보도 양태를 낳고 있음.
-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매체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지만 인터넷 활성화로 온오프라인 결합열독률은 유지, 상승하고 있음. 매체들이 지지 부진하지만 뉴스, 소통, 콘텐츠에 대한 일반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좋은 콘텐츠가 해결책

- 한국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언론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음.
- 나쁜 콘텐츠가 현실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움.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이 시장에서 좋은 콘텐츠를 변별해 낼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언론 내부와 외부에서 나쁜 콘텐츠를 몰아내고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언론 내부적으로는 콘텐츠 생산구조의 개방, 다양화, 중층화와 실질적인 내부 비평의 활성화가 중요함. 열린 편집국, 혁신친화적인 편집국으로 만들어 가야 함.
- 언론 외부적으로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언론 비평·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일부 시민운동단체의 언론모니터링 외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 분석 기관이 없으며 시민단체의 활동도 많이 위축된 상황임. 이를 정부에 맡길 수도 없음.

- 종편 관련 기사를 준비하면서 종편에 대해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을 찾지 못했음. 보수·진보지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특정 콘텐츠를 분석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등이 힘을 합쳐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언론보도 분석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갈등과 대결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구조가 문제

- 언론 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 숙의기구의 경우 실익이 별로 없어 보임. 결국은 각 언론사가 콘텐츠를 통해 언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언론 갈등 해결의 첩경임.
- 출입처 제도의 개선, 탐사보도팀의 구성, 새로운 뉴스 틀의 개발 등도 결국은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추구해야할 사항임. 다만, 탐사보도팀 등과 같이 기존의 뉴스 틀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개별 콘텐츠 생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좋은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보상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조직 구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치의 품질 저하, 정부의 신뢰도 저하, 정치적 냉소주의 확대 등 정치사회적 위기는 언론과 정당, 정부 등 사회의 모든 중추기관들에게 공히 책임이 있음. 서로가 편을 짜서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뻘뻘어진 사회구조가 가장 큰 문제임. 정치는 정치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후진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토 론 문

김선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한규섭 교수님의 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
 - 한 때 언론인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언론인의 말은 권위와 신뢰라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음.
 - 언론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의 정파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민영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은 제4부(Fourth Estate)로서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하나, 오늘날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정파적 프레임에 갇혀있음. 한국 언론에게 정파적 프레임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이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정파성 이외에도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다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음. 타언론사 기사 베껴쓰기, 소위 ‘어뷰징’이라고 불리는 포털에 동일기사 반복 전송, 광고 수주 및 금품 수수 목적의 유사 언론행위 등이 그러한 예임.
 - 이러한 현상은 한국 언론의 경쟁이 정상적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콘텐츠의 차별화를 통해 니치 시장을 구축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음.
 - 기사 베껴쓰기와 어뷰징은 특히 심각함. 아무리 좋은 뉴스를 만들더라도 다른 언론사가 베껴 써버리게 되면, 품질 좋은 뉴스를 생산할 의욕이 저하됨.
 - 고품질 뉴스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고품질 뉴스를 생산하더라도 트래픽이 얼마 없고 실시간 검색어 어뷰징한 기사가 더 많은 트래픽을 끌어온다면 고품질 뉴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임.
-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포털은 비정상적 뉴스 생태계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음.
 - 이는 포털의 독자적 책임은 아니며, 포털과 언론사들의 공동책임임. 그런 점에서 한규섭 교수님의 포털 검색 알고리즘 지적은 흥미로움. 미국·유럽에서도 어떤 기사를 상위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는 민영 교수님이 제안한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속의기구’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함. 알고리즘은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 전략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론 형성이라는 공적 책무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함.

- 다만,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내용에 대한 간섭보다는 저널리즘 품질 측면에서 내용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구글의 뉴스 트러스트 프로젝트는 좋은 참조 대상임. 구글은 언론사들에게 제대로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며, 기자의 전문분야를 자세히 소개하고, 기사 작성 방법(예: 몇 명을 어떻게 인터뷰했는가)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이런 노력을 기울인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선순환적인 뉴스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
- 저널리즘의 공공성 강화 혹은 공적 책무성의 회복은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는 것임.
- 저널리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율 규제든 정부 규제든 규제 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언론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함.
- 지금은 무엇보다 뉴스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지난 20세기가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테크놀로지의 시대임. 뉴스는 앞으로도 생존할 것임. 그런데 뉴스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생존할 것임. 신문은 뉴스만 콘텐츠로 가지고 있지만, 방송의 시대가 열리면서 뉴스는 드라마, 스포츠 같은 오락 콘텐츠와 결합했음.
- 디지털 시대에 뉴스는 더욱 다양한 범위의 콘텐츠와 결합하고 있음. 포털에서는 블로그와 결합했고, SNS에서는 사람들 간 대화와 결합했음. 요즘 일부 쇼핑몰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음. 뉴스는 이제 디지털에 편재하고(ubiquitous)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과제가 있음.
- 첫째, 뉴스 제공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불이 필요함. 포털뿐만 아니라 SNS, 쇼핑몰 등에서 뉴스를 게재할 경우, 그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지불해야함. 이에 대해 사회적 숙의 기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
- 둘째, 저널리즘 콘텐츠 혁신을 고민해야 함. 앞으로 뉴스 생산자가 기성 언론사가 될 것인지는 의문임. 기성 언론사가 어떻게 혁신하고 투자하는가에 달려있음. 그런 점에서 민영 교수님이 제안한, 언론인 재교육은 매우 필요함. 연구자, 언론인, 개발자가 협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작업이 절실함.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ROI가 매우 낮아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본 토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토론자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or notebook page. At the top left, there is a gray rectangular header with the word "MEMO" written in white, uppercase letters. The rest of the page is filled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re are four small black dots located at the corners of the page: one in the top right corner and three along the bottom edge (left, center, and right).

•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or notebook page. At the top left, there is a gray rectangular header with the word "MEMO" written in white, uppercase letters. The rest of the page is filled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re are four small black dots located at the corners of the page: one in the top right corner and three along the bottom edge (left, center, and right).